

다니엘서 - 제45번

상징적 변용: 다니엘서에 나타난 상번제의 신비 해명

Jeff Pippenger

2024-01-09

다니엘서의 'daily'는 윌리엄 밀러가 이교 로마 또는 이교의 상징으로 인식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윌리엄 밀러의 기초 진리들이 거절되는 것의 상징이다. 그것은 레위기 26장에서 모세가 말한 '일곱 때'에 대한 밀러의 이해를 거절함으로써 1863년에 시작된 반역의 종결을 나타낸다. 재림주의자들이 'daily'를 이교로 올바르게 식별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사탄의 상징을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사야는 이 일을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daily'의 거절은 1930년대(재림주의 운동의 세 번째 세대)에 자리 잡았지만, 1901년(재림주의 운동의 두 번째 세대)부터 논쟁거리였다. 고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한 점진적인 거절이 용서받지 못할 죄의 요소를 담은 오류를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트집을 잡던 유대인들에게 있어 용서받지 못할 죄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사탄의 일로 규정했을 때 드러났다. 고대 이스라엘은 현대 이스라엘의 주요한 상징이며, 현대 이스라엘은 그것과 똑같은 일을 했지만 정반대로 했다. 그들은 사탄의 일(이교)을 그리스도의 일로 돌렸다. 고대 이스라엘의 반역에는 사탄을 자기들의 왕으로 선택한 것이 포함된다.

이에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끌어내어,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라 하고 '돌로 깔린 뜰'이라 불리는 곳의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었고 때는 제육시쯤이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나 그들은 외쳤다. 없애라, 없애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에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예수를 넘겨받아 끌고 갔다. 요한복음 19:13-16.

빌라도는 이교 로마의 대표자였고, 화이트 자매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사탄이라고 지적하지만, 이차적 의미에서 그 용은 이교 로마이기도 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 용은 'the daily'로 상징된다. 고대 이스라엘의 반역의 끝은 그들이 공개적으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선포했을 때였으며,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왕의 신하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었고, 그 왕은 사탄이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에 대한 그 반역은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시작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거절하고 다른 민족들과 같아지기 위해 사람 왕을 요구했을 때였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와 그에게 말하였다.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를 재판할 왕을 우리에게 세워 주옵소서.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재판할 왕을 주라 하고 말하였을 때, 그 일이 사무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되, 백성이 네게

말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내가 그들 위에 왕으로 다스리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곧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그대로, 그들이 네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사무엘상 8:4-8.

고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사실도, 세속의 왕을 향한 그들의 욕망이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탄을 왕으로 삼는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결코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반역은, 하나님을 거부했음에도 자신들은 여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기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생각 때문에 그들의 눈에서 가려져 있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사무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언 사역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다고 그들은 스스로 추론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라고 믿으면서, 선지자들의 예언 사역을 오해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선지자들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활동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보내진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를 계속 거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같은 미혹이 1863년에 재림주의에 임했다.

재림주의는 윌리엄 밀러의 사역으로 결집된 그 운동을 거절했고, 엘리야(William Miller)를 통해 전해진 모세의 '일곱 때'의 기별을 거절한 바로 그 해에 법적으로 등록된 교회가 되기를 선택했다. 같은 해에 그들은 더 이상 읽을 수 없고 하박국 2장 3절에 따라 더 이상 '말할' 수도 없는 위조된 예언 도표를 만들어 냈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유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박국의 도표들은 있는 그대로 읽을 수 있었고, 따라서 '말할' 수 있었다.

재림주의는 1863년에 자신들이 내린 선택에 대해 어떤 자기 성찰도하기를 거부했는데, 어쨌든 그들 가운데 여선지자가 있었고, 그것이 그들이 예언의 영을 가진 남은 자로서 요한계시록에 의해 식별된 백성임을 증명해 준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과 같은 정신과 태도를 드러냈고, 밀러가 발견한 첫 번째 보석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반역은 결국 'the daily'라는 보석에 대한 밀러의 규정까지도 그들이 거부하는 데 이르게 했다.

현대 이스라엘은 이교 로마의 상징이며 더 나아가 사탄의 상징이기도 한 "the daily"에 대한 밀러의 이해를 거부하고, "the daily"가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현대 이스라엘은 사탄의 상징을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 마치 고대 이스라엘이 사탄의 상징인 이교 로마의 대표자인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예언적 적용의 관점에서, 그 선택은 현대 이스라엘이 다니엘서 7장, 8장, 9장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장들은 올라이 강으로 상징되는 바로 그 장들이며, 밀러파 역사에서 '지식의 증가'였다. 8장이 "the daily"를 세 번 직접 언급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장들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올라이 강의 환상이 봉인이 풀린 역사적 상황 때문에, 밀러주의자들은 다니엘서 2장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다른 어떤 지상 왕국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넷째 왕국인 로마를 두 가지 측면을 지닌 하나의 왕국으로 여겼다. 그 두 측면은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다니엘은 자신이 8장에서 받은 환상이 7장의 환상과 연관지어 이해되어야 함을 밝힌다.

벨사살 왕이 통치한 지 3년째에, 처음에 내게 나타났던 것 뒤에, 곧 나 다니엘에게 환상이 나타났다. 다니엘 8:1.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은 제7장의 환상이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의 환상들을 보았다. 이에 그는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의 개요를 말하였다. 다니엘 7:1.

두 개의 환상은 다니엘서 2장에서 처음 제시된 성경 예언 속 왕국들의 두 가지 측면을 나타낸다. 바벨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네 왕국은 7장에서 반복되고 이어 8장에서 다시 한 번 제시되는데, 네 왕국의 정치적 요소와 종교적 요소가 구분되어 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 왕국들이 맹수들로 상징되지만, 8장에서는 같은 왕국들이 성소의 짐승들로 제시된다. 다니엘은 7장의 환상을 이해하기를 원했으며, 가브리엘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에게 왔다.

나 다니엘은 내 몸 속에서 내 영이 근심하였고,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괴롭게 하였다. 나는 곁에서 있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다가가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해 주어 그 일들의 해석을 알게 해 주었다. 이 큰 짐승 넷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들이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받을 것이며, 영원히, 영원무궁토록 그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다니엘서 7:15-18.

다니엘은 네 짐승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존재할 네 개의 지상 왕국을 뜻한다는 사실을 다니엘서 2장과 일치하게 알게 되었다. 2장에서 산에서 깎여 나온 돌이 온 땅을 가득 채우는 모습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기에 앞서, 네 개의 지상 왕국이 있을 것이었다.

화이트 자매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의 짐승을 다루면서, 그 네 왕국들에 대한 밀러파의 이해를 밀러파의 기존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장했다.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상징이 도입된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 같이 두 뿔을 가졌더라.' 11절. 이 짐승의 모습과 등장 방식 모두는 그것이 대표하는 나라가 앞선 상징들로 나타난 나라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세상을 다스려 온 큰 왕국들은 선지자 다니엘에게,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 위에서 싸울 때' 일어나는 맹수들로 제시되었다. 다니엘 7:2.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한 천사는 물들이 '백성과 무리와 민족과 방언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요한계시록 17:15. 바람은 분쟁의 상징이다.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 위에서 싸우는 것은 나라들이 권세를 얻는 데 이르게 한 정복과 혁명의 참혹한 장면들을 나타낸다." 대쟁투, 439.

짐승들은 왕국들이 권세를 잡아가면서 이루어낸 정복을 상징한다. 맹수는 예언적으로 한 왕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권력을 상징한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묘사된 같은 왕국들이 8장에서도 묘사되지만, 거기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성소에서 유래한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왕국들의 종교적 요소를 나타낸다. 이는 그들이 모두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었기 때문이다.

벨사살 왕 통치 제삼년에, 처음에 내게 보였던 환상 뒤에 또 하나의 환상이 나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내가 환상 가운데 보니, 내가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 궁전에 있었고, 또 환상 가운데 보니 내가 올라이 강가에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강 앞에 두 뿔을 가진 숫양이 서 있었는데, 그 두 뿔은 높았으나 하나는 다른 것보다 더 높았고, 더 높은 것이 나중에 돌아났다. 내가 보니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밀쳐 나아갔으므로 어떤 짐승도 그의 앞에 설 수 없었고, 그의 손에서 건져낼 자도 없었으며,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여 크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보라,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 온 땅을 가로질러 오는데 땅에 닿지 않았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두드러진 뿔 하나가 있었다. 그가 내가 강 앞에서 서 있는 것을 보았던 그 두 뿔 가진 숫양에게로 와서, 맹렬한 기세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가 그 숫양 가까이 이르러 그에게 분노하여 숫양을 쳐서 그의 두 뿔을 부러뜨렸고, 숫양에게는 그의 앞에 설 힘이 없어 그가 그를 땅에 내던지고 짓밟았으며, 그 숫양을 그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그 숫염소가 매우 크게 되었는데, 그가 강성해졌을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 눈에 띄는 네 개가 돌아났다. 다니엘 8:1-8.

제8장은 다니엘이 자신이 그때 성경 예언의 첫째 왕국(바벨론)의 역사 속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의 환상은 바벨론을 대표할 어떤 상징도 제시하지 않는데, 그 환상이 두 번째 지상 왕국인 메대-바사를 대표하는 숫양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바벨론의 상징이 없는 것은 의도적이다. 바벨론의 주요한 특징은 느부갓네살이 '일곱 때' 동안 짐승처럼 살았던 것으로 나타나듯, 제거되었다가 이후에 회복되는 왕국을 대표한다는 데 있다. 그 '일곱 때' 동안에는 영적 바벨론(교황권)의 한 요소가 표상되는데, 교황권은 상징적 칠십 년 동안 잊혀진 왕국이며 그 기간 동안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자신이 그 환상을 '벨사살 왕 제3년'에 받았다고 밝히는 사실은 바벨론이 두 번째 왕국인 메대-바사에 앞서는 왕국임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바벨론을 한 왕의 통치 기간 동안 망각되는 숨겨진, 또는 잊힌 왕국으로 강조한다.

8장의 짐승들은 맹수가 아니라 성소 봉사에서 희생 제물로 사용되던 짐승들이다. 넷째 왕국은 짐승이 아니라 '작은 뿔'로 묘사되는데, 뿔은 하나님의 성소의 일부였다. 이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제단들이 그 설계의 일부로 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예언의 네 왕국을 성소의 용어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장의 서사에는 하나님의 성소 봉사에서 직접 파생된 여러 단어가 들어 있다. 그 장의 서사는 성소 봉사에서 끌어온 히브리어 단어들로 제시될 뿐 아니라, 성소 봉사에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장의 구조 속에 짜여 있다. 다니엘이 7장과 8장을 의도적으로 서로 연결해 놓았다는 사실은, 보고자 하는 이들로 하여금 7장은 성경 예언의 왕국들에 관한 통치술을, 8장은 성경 예언의 왕국들에 관한 교권 운영을 식별하고 있음을 보게 한다.

재림주의는 이 사실을 사탄적인 신화들로 덮어 감추도록 강요받아 왔다. 이는 이러한 인정이 밀러의 '보석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였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들이 밀러의 'the daily'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는 아무런 이해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 밀러에게 그들을 주실 때 그것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너희가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구나!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겠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그에게는 지각이 없다' 하겠느냐? 이사야 29:16.

밀러의 틀은 그가 인식하고 활용했던 예언적 구조였다. 그러나 1863년 이후로 재림주의는 밀러의 꿈에 담긴 보석들을 덮어 감추기 위해 배교한 개신교와 가톨릭의 신학적 적용으로 되돌아갔다. 재림주의는 그 일을, 그리고 그 일을 만드신 분까지도 거절하기 위해 거짓된 틀(지어진 것)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 일을 만드신 분께서 지각이 없다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그 예언적 틀을 거절한 것은, 그때도 지금도, 1798년에 봉인이 풀린 지식의 증가를 거절한 것이었다. 그 지식의 증가를 거절하는 자들은 그 일과 그 일을 만드신 분을 거절하는 것이며, 다니엘의 표현으로는 그들은 '악인'이었다.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 희어질 것이며 연단을 받을 것이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할 것이요, 악인 중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리라.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 12:10.

"악한 자들은 악하게 행할 것이다"는 진리에 대한 점점 더 격화되는 거부를 드러낸다. 악한 자들이 그 틀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하나님은 그들이 거짓된 틀을 통해 이루려는 그 거부 때문에 악한 자들을 거절하신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호세아 4:6.

1844년부터 1863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은 윌리엄 밀러의 사역을 통해 증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호세아서 6절의 문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문맥은 진리가 '지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 진리에 대한 반역이 점점 격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다투시나니, 이는 이 땅에는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음이라.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터져 나와 피가 피에 접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땅이 슬퍼하며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쇠약할 것이요,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더불어 바다의 고기도 또한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도 다투지 말며 서로 책망하지 말라. 네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와 같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낮에 넘어질 것이요, 선지자도 밤에 너와 함께 넘어지리니,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죄를 지었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부끄러움으로 바꾸리라. 그들은

내 백성의 죄를 먹고 그들의 죄악에 마음을 둔다. 그러므로 백성과 제사장이 한가지가 될 것이니, 내가 그들의 길대로 별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음행하여도 번성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그쳤음이라.

음행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 내 백성은 그들의 나무에게 묻고, 그들의 지팡이가 그들에게 알려 준다. 이는 음행의 영이 그들을 미혹하였고, 그들이 자기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언덕 위에서 향을 사르며, 상수리나무와 백양나무와 느릅나무 아래에서 하니, 그 그들이 좋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고 너희 아내들은 간음하리라. 너희 딸들이 음행할 때에 내가 별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내들이 간음할 때에 내가 별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자신이 창기들과 함께 따로 물러가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을 드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비록 음행할지라도 유다는 범죄하지 말라. 너희는 길갈에 오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다'고 맹세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거역하는 암송아지처럼 물러가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넓은 곳에서 어린 양처럼 먹이시리라. 에브라임이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그들의 술은 시어졌고, 그들은 끊임없이 음행하였으며, 그의 통치자들은 수치를 사랑하며 "주라!" 하고 외친다. 바람이 그를 그 날개에 싸매었고, 그들은 그들의 제사들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호세아 4:1-19.

호세아의 경고는 "이 땅에는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의 거민과 송사하신다"는 것이다. 재림운동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먼지 술을 든 사람이 밀러의 방에 들어오는 그 날에,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포함한 재림운동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넘어지리라"는 말씀대로 넘어질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우상들과 연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우상은 모조의 틀 속에 엮여 짜인 그들의 거짓 교리들이다.

지식의 증가를 거절함으로 나타나는 반역은, 밀러의 방에서 쓸어내버려진 거짓된 교리들과 그들이 연합되었다는 선고와 함께 그들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점차 격화되는 반역이다. 그들의 반역은 끊임없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표현된다. 1863년 이후로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주의 입에서 토하여 내쳐지기까지 끊임없이 반역한다.

지식을 거부하는 반역은 그들이 간음을 '끊임없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록 같은 히브리어 단어는 아니지만 그 의미는 '끊임없는'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tamid'와 같고, 이 단어는 다니엘서에서 'the daily'로 번역된다.

다음 글에서 성경 예언의 네 왕국에 대한 우리의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Daily'와 관련하여, 'sacrifice'라는 단어는 사람의 지혜로 덧붙여진 것이며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주께서 심판의 시간의 외침을 전한 이들에게 그것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주셨다는 것을 보았다. 1844년 이전, 연합이 있었을 때에는 거의 모두가 'Daily'에 대한 올바른 견해에 의견을 같이했으나, 1844년 이후 혼란 속에서 다른 견해들이 받아들여졌고, 어둠과 혼란이 뒤따랐다. Review and Herald, 1850년 11월 1일.

